

치 사

한국불교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, 나아가 전 세계에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전하는 불교문화상품공모전의 영예로운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.

이 시대의 문화상품은 단순한 물질적 한계를 넘어, 문화와 사람을 잇는 징검다리로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.

불교문화상품공모전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함께, 창의적인 전통문화 상품을 개발하여 세계속에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, 그 가치를 되새겨 현대인들과 일상에서 호흡한다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.

이번 불교문화상품공모전은 어느 해보다 다양하고 우수한 작품들이 출품된 것은 물론, 디자인 상품의 수준을 뛰어넘어 문화콘텐츠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.

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더 발전해 나가는 불교문화상품공모전을 통해, 이제 우리는 아름다움과 지혜, 그리고 공존이라는 불교의 가르침이 담긴 참신한 문화콘텐츠와 더욱 가까워 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어느 시대의 문화도, 그 시대의 노력과 땀방울 없이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. 깊은 산사의 작은 석등하나에도 천년을 잇는 감동이 서려있듯, 수상자 여러분의 작품 또한 대중의 삶을 더욱 가치 있고 풍성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.

불교문화상품의 새로운 지평을 넓혀가고 있는 공모전 수상자 여러분들을 거듭 축하하며, 성심으로 노력을 다해주신 여러 심사위원 및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. 감사합니다.

불기2558(2014)년 2월 19일
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합장